

여고생의 진학을 통해서

<경기여고 교사> 김 인 식

해마다 대학 입시원서 제출기가 다가오면 담임교사와 학생간에는 입씨름이 벌어지곤 한다. 덕분에 죄없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섭섭한 감을 주는 일도 많다. 나의 말 한마디에 학생의 꿈은 좌절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어느대학을, 무슨과로,」로 그 학생 실력에 무리가 없고 연례로 봐서 합격성이 확실한 학과로 권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는 저마다 천차만별이다. 자자 개성과 취미에 따라, 가정환경에 따라, 그의 여러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학생들이 학과를 택하는 공통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들이 거의 일류교이며 또 사회성 있는 학과를 원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경향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생각컨대 이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해마다 증가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학생도 자기의 장래문제에 있어서 사회성 있고 개성있는 학과를 원하는 듯하다. 또 여학생들은 사회성이 있고 개성이 있으면서도 장래에 자기의 직업이 보장되고 안정되어 있기를 원하며 나아가 그들은 택하는 직업이 자기의 결혼생활에 있어 자녀교육이나 남편에게, 생활에 있어 자녀교육이나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게 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참 이기적이다. 그런 이유에서 인지 근년에 와서 특이하게 간호대학 지원생이 증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착실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그곳에 진학을 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학교 졸업생만도 매년 증가되고 있는 사실이다.

간호대학 지원생이 증가되는 이유를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본다.

첫째, 간호대학은 여성만이 진학하므로 우선

(간호대학 진학자수)

대 학 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서울대 간호학과	2	4	3	4	2	10
연세 간호대학교	2	1	2	4	2	3
이화 간호대학교	1	0	1	0	0	0
Medical Santa	0	0	0	4	1	2
동산병원간호학교	0	0	0	0	2	1
적십자 간호학교	0	0	0	1	0	0
합 계	5	5	6	13	7	16

안정하게 직업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간호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정적(情的)이면서도 지성미(知性美)를 간직한 하얀 부장의 간호원을 볼 때 어떤 깨끗한 감정과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며 또한 여성인의 생각도 과거의 간호원은 「의사의 부속물」이라는 편견에서 점차 「독립된 직업분야」라는 생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결혼생활을 놓고 봐도 유용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가정의 보전위생관리, 남편에 대한 서비스 문제, 그의 어떤일이 닥치더라도 침착하고 냉정함을 잃지 않는 주부로서의 훌륭한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점.

넷째, 직업면으로 수용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까지 노동력이 진출되며 외국유학의 기회가 수월하다는 점.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이 간호대학을 택하게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학생 뿐 아니라 교사의 입장에서도 동감하는바 크므로 차분하고 정숙한 생각을 지닌 간호대학 지망생에게 원서를 써준다. 그들이 부디 합격이 되어 친절하고 아름답고 지적인 그런 멋진 간호원이 되어 보라고 권했고 또 앞으로도 권할 것이다.